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3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4,1-1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서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서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 요한 14,1-12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1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과의 이별보다는 그 이별로 인해 당신 제자들이 느끼게 될 절망과 두려움을 더욱 염려하신다.  
하느님과 당신 믿는 ‘믿음’만이 걱정을 쫓아내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서 그들과 잠시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당신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올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토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에 진리와 생명이신 것이다.  
또한 그분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길이 되셨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수 없음을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8절)  
다른 곳에서 다른 표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필립보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당신이 동일한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분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보여 주시고 당신의 구원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는 데는 육신의 눈으로만은 부족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앞으로 당신이 하시려는 일, 즉 죽음, 부활, 성령의 선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빠스카의 사건들이야말로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토마와 필립보의 질문은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알아 뵈지 못하는 우리들의 질문이다.  
교회안에서도 법령과 규정들에 얽매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본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를 뵈우는 열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육화의 신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살아있는 길인 예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뵈을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의 말씀~ 성경을 아십니까?" 5분 상식

성경, 생명의 말씀을 담은 이 책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책과는 온전히 다른, 유일한 책  
입니다.  
지상에 아주 힘차게 뚫고 들어와  
인종의 장벽과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복음)을 알립니다.

성경은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길이요 참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형제자매 공동체로  
모아, 같은 삶 안에서 일치시킵니다.

성경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며,  
인간 마음의 정신이요 생명이며,  
힘과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지금도 우리를 밝히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희망은 죽음의 심연을 뛰어넘어  
살아 있는 목소리로  
빛의 자녀들에게로 다가옵니다.

하느님 말씀이 담긴 책,  
세상에 가장 널리 전파된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당신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자시며,  
희망이십니다' 하고 끊임없이 응답합니다.

## 공지사항

다음달 성경말씀은  
요한 20,19-23입니다.

\*\* 산호세 성당 소공동체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알렐루야!!~~~

\*\* 야외미사 및 야유회: 본당의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4일(5월 첫째 주일)10:00am-4:00pm

장소: Lake Cunningham Park 2033 S. White Rd. San Jose, CA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수원 작곡  
수정 원 작사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지 않겠네 아

름 - 기 하 고 봉사하 자 세상 모두에 게

마 음 모 - 야 기도하 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 체